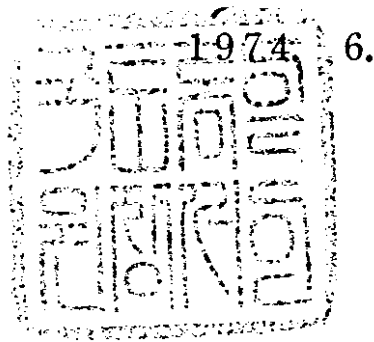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研究責任者 : 金 仁 洪

目 次

I . 研究目的	3
II . 南北對話의 目標	5
III . 弘報方向	8
1 . 南北對話不振 理由	8
2 . 8.28 金英柱聲明의 底意	20
3 . 南北赤十字會談의 中斷 原因	23
4 . 對話正常化의 展望	27
5 . UN總會의 合意聲明의 意味	31
IV . 對話의 展開條件	34
V . 結 語	37

I. 研究目的

南北對話는 우리의 主導下에 開始되었고 또 우리의 誠實性에 立脚하여 誘導되어 왔다. 그러나 北傀는 이런 誠實性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오직 그들은 戰略的인 次元에서 活用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와같이 對話에 臨하는 南北韓의 基本的 立場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런 立場을 取해온 것이 北韓이다.

이런 基本立場의 差異는 對話中斷을 予側하는데 까지 發展하였고, 드디어는 73年 8月 28日 北傀側 金英柱의 一方的인 對話中斷 宣稱으로 對話는 中斷되고 展望 역시 暗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北傀는 對話中斷의 原因이 마치 우리側에 있는 것처럼 對內外的으로 非難하고 있다는 것은 적반하장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北傀의 宣傳이 이렇게 악랄하게 造作, 날조되고 있는 點에 비추어 坐視할수 없으며 이에 대한 反擊 弘報를 積極化함은 물론, 北傀의 對話에 대한 不誠實한 態度와 無誠意를 指摘하고 우리의 正當性을 立証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對內的인 弘報의 重要性이 導出되고 또 對北 心理戰에 있어서도 北傀 內部 矛盾을 指摘하여 北韓住民으로 하여금 金日成 政權을 不信하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이런 點에 着眼하여 本論文은 北傀가 對話를 不振시키고 있는

... 点을 指摘하고, 이를 中断하게 된 底意와 앞으로 對話에 대한 展
望을 予測하면서 北傀의 戰略을 批判하고자 한다.

이러한 基礎위에서 南北對話의 弘報方向을 設定하여 效果的인 弘
報活動을 展開하여야 한다.

Ⅲ. 南北對話의 目標

나라가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南北으로 分斷돼 있는 현실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分斷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朴正熙大統領은 1972년 6월 23일 내외에 천명한 새로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의 첫 항목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고 言明함으로써 온 국민의 희망과 일치된 정부의 결연한 결의를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지상의 과제인 나라의 통일은 그렇게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안고 있다. 그것은 韓半島의 南北 쌍방이 自由民主主義와 共産主義라는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역사관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體制로 대립되어 있으며 쌍방은 각기 자기 體制를 고수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韓半島의 현실 상황을 감안한 나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次善의 방안으로 對話를 선택했다. 對話를 통해 敵對적인 두 體制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韓半島에서 전쟁의 위험을 추방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도모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對話의 目標을 우리는 역사적인 7·4 南北共同聲明에 明文化시켜 놓았다.

南北 雙方은 共同聲明에서 分斷祖國의 통일은 자주적 노력과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南北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푸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기로』한 것이다.

긴장을 완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共同聲明은 이를 위해서 南北 쌍방이 취할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놓고 있다.

- 상호 中傷·誹謗중지, 大小간 무장충돌 지양, 군사적 충돌방지
-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의 실시
- 南北赤十字會談의 촉진
- 南北직통전화의 가설·운영
- 합의사항 추진, 南北간의 제반 문제 개선·해결,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로서 南北調節委員會의 구성·운영

南北對話의 목적은 이상 열거한 7·4 南北共同聲明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선적으로는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韓半島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고, 오해와 불신의 제거,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통해 南北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

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 자주통일의 길을 넓혀 가자는 것인 것이다.

朴正熙대통령은 南北共同聲明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對話의 목표를 높이 평가하여 6·23선언의 제3항에서 『우리는 南北共同聲명의 정신에 입각한 南北對話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다짐했다.

Ⅲ. 弘報方向

1. 南北對話 不振理由

南北對話는 7.4 南北共同聲明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문서가 생산됨으로써 쌍방이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共同聲明 이후 1년반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반의 對話의 경과는 비단 對話의 진진적인 성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그 동안 쌍방간에 이루어진 일부 합의사항이 일방에 의해 공공연히 유린되고 새로운 긴장이 일방에 의해 도발되며 對話의 통로가 일방적으로 단절되고 전반적인 南北關係의 양상이 南北共同聲明 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되는 일련의 우려할만한 사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對話의 부진과 南北관계 후퇴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對話內的 要因과 對話外的 要因에 대한 규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 對話內的 要因

南北對話의 진전이 교착된 직접적인 원인은 南北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분명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무시, 외면하고 유린하는 北韓側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

南北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무시, 외면하고 유린하는 北韓의 행동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南北對話의 교착으로 부터 중단을 불가피하게 만든 北韓의 행동은 우선 쌍방간에 합의된 對話의 通路를 변경시키려는 집요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南北 쌍방은 7·4 南北共同声明에서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南北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기구로 南北調節委員會를 창설했다.

7·4 南北共同声明은 南北 쌍방을 대표한 서울측의 李厚洛부장(당시 중앙정보부장)과 평양측의 金英柱부장(노동당조직지도부장)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합의, 서명했으며 또 쌍방은 1972년 11월 정식으로 합의, 채택하여 발효시킨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급으로 할 것에 합의했다. 쌍방은 위원회를 사실상 쌍방의 「당국」 간의 기구로 운영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쌍방은 동 합의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다. ① 통일문제 ② 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간의 정치적 교류 ③ 경제·문화·사회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④ 긴장완화·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대치의 해소 ⑤ 對外활동에서의 공동보조 추구등을 협의 해결하고 실천을 보장하는 기능들이 그 것이다.

北韓은 위원회가 1972년 11월 정식으로 발족되자 미처 제반 위원회의 업무 기능도 정비되기 전에 합의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의 번질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973년 3월 평양에서 열린 위원회의 제 2차회의에서 北韓측은

「군사문제 우선 해결 주장」이라는 명목으로 위원회의 개원령을 주장하는가 하면, 「통일문제 해결을 위하여」南北정당·사회단체들
 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요구했다.

같은 해 4월 16일 金日成은 『南北調節委員會에 정당·사회단체들
 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편하거나 또는 통일문제 해결
 을 위해 調節委員會와는 별도로 南北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했다. 北韓은 위원회의 개편 또는 對話通路의 實質문제를 위
 원회 테두리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南北調節委員會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동 합의서의 수정·보완은 위원회의
 합의에 의거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北韓은 이러한
 일련의 합의사항들을 공공연하에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합 세차례의 南北調節委員會 회의를 통해 大韓民國측은 위원회
 의 업무기능 정상화와 쌍방간의 합의사항들의 실천을 구체화할 것
 을 주장한 반면 北韓측은 一貫해서 이러한 對話通路의 변경문제에
 관한 자기측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시종했다. 對話의 포착은
 아무도 단연한 締結이었다.

北韓은 또 전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들고 나
 와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對話의 진전을 가로 막았다.
 군사문제 우선 해결 주장이 그것이다.

南北對話의 진전과 성공은 7.4 南北共同聲明의 제2항부터 5항까
 기의 여러가지 조치들이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져 南北간의 긴장이

현실적으로 완화되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증진되는 일련의 사태발전이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전제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또 그러한 「과정」이 충족되지 않고서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幻想」을 조작하여 이를 대내외 선전에 활용하는데 급급해 왔다. 말하자면 『통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馬車를 말 앞에 세우는 式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운 것이다. 소위 「군사문제우선해결」 주장은 바로 그러한 兪想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상대측과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보다 선전효과를 강렬하게 의식한 주장이었다.

北韓이 對話의 진전을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北韓이 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제안이 각항목 상호간에 모순을 들어내고 있는 데서도 명백하게 들어났다. 예를 들어 南北韓調節委員會에서 北韓측이 제시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관계 개선의 관건은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에 있다. 따라서 南北간에는 ① 군비경쟁의 중지 ② 병력의 감축 ③ 外軍의 철수 ④ 군 장비도입의 중지 ⑤ 평화협정 체결등 군사 5개항목이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南北調節委員會를 개편하여 군 책임자를 여기에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위원회의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등 5개분과위원회는

동시에 일괄해서 설치해야 한다.

셋째, 통일문제를 논의 해결하기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北韓의 이 3개항목 제안은 文面에서 읽을 수 있듯이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며 또 셋째 항목은 위원회의 합의된 기능을 부정하는 항목인 것이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의를 목적으로 내놓은 제안이 아니었다.

北韓이 南北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아무 미련 없이 파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호 비난 방송 중지에 관한 합의의 경우이다. 南北상방은 1972년 11월 상호 中傷·誹謗 중지를 약속한 南北共同聲明 제 2항의 구체화를 위해 1차적으로 서로 對南·對北 방송과 휴전선에서의 「스피커」 방송, 선전 「빼라」 살포 중지에 합의, 이를 11월 11일을 기해 발효시켰다. 그러나 이가운데 상호 비난방송 중지에 관한 합의는 처음부터 하나 마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北韓은 한달이 못가 大韓民國에 대한 전면적인 비난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에게 선전과 선동은 정치투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비난방송 중지에 관한 합의 후에는 즉각적인 후회가 뒤따랐는지도 모른다.

하여튼北韓은 對南비난방송을 재개한후 1972년 11월 11일부터 1973년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北韓의 정규방송 TV망을 통해 총 10,282건의 對南비난 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北韓의 對南비난 방송은 大韓民國의 사회현실과 정부의 내외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변조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으로 특히 1973년 후반기에 와서는 大韓民國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악랄하고도 야비한 指名인신 공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은 소위「통척당의 목소리」라는 유령 지하방송국을 北韓지역 내에서 운영하면서 같은 기간 중에 총 10,764건의 對南 비난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유령 방송은 특히 大韓民國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反政府 봉기를 선동함으로써 南北관계의 앞날에 중대한 暗影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南北對話를 교착시킨 對話內的 要因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北韓은 급기야 1973년 8월 28일 南北調節委員會 평양측공동위원장 金英柱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對話를 중단시켜 버렸다.

나. 對話 外的 要因

北韓은 무엇 때문에 對話를 교착시키고 더 나아가 對話를 중단시켰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南北관계의 對話外的 側面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은 한 마디로 北韓이 對話 이전은 물론 對話 이후에도 오로지 소위「南朝鮮革命」이론에 立脚한 對南赤化統一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이 對話 이전은 물론 對話 이후에도 소위 「南朝鮮革命」을

통한 對南赤化統一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는 北韓당국자들의 입과 北韓側의 문헌을 통해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우선 7·4 南北共同聲明 발표 하루 전에 北韓에서 발표된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의 互相關係에 관하여」라는 정책 논문을 보자.

이 논문은 分斷韓國의 統一은 『南朝鮮에서 美軍이 물러 나가고 「人民民主主義 革命」이 승리하여 「人民」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잡을 때 성취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祖國統一의 「前提條件」이 『南朝鮮에서 反帝·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의 完수』라고 못박고 『南朝鮮革命을 수행하는 데는 오직 暴力的 方法 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分斷韓國의 통일은 반드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기치 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아 北韓이 생각하는 통일은 오로지 赤化統一임을 강조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平和的·非平和的 方法이 있을 수 있으나 平和的 통일은 오로지 南朝鮮革命이 수행되는 조건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 北韓版 「平和統一論」의 스스로의 限界性을 명백히 해 놓았다.

이 논문의 基調는 같은 해 10월 5일 北韓노동당 대표자회의 6주년에 즈음한 金日成의 연설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이것은 南北 간에 이미 7·4 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고 난 뒤의 일이었다.

金日成은 이 연설에서 祖國의 통일은 「南朝鮮革命」이 수행됨으로써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南朝鮮에서 反革命을 타도하고 革命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革命力量을 준비하여야 한다』하면서 「南朝鮮革命」은 반드시 暴力的 方法에 의해서 수행되

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北韓이 추구하는 暴力에 의한 「南朝鮮革命」이란 곧 그들이 말
 하는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망식의 의한 혁명을 말한다. 이것
 은 大韓民國의 합법적인 정부와 憲政體制를 철수할 미 「打倒」의
 대상으로 삼고 오로지 大韓民國의 국민들 사이의 합법·비합법적
 모든 방법으로 침투하여 국민들을 사상적·계급적으로 조직 선동하
 여 暴力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大韓民國의 정부와 憲政秩序를
 일거에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北韓은 또 駐韓美軍의 철수 문제에 있어서도 美軍의 철수를
 『南朝鮮革命의 先決條件』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美軍
 철수 주장이 韓半島의 평화 공진이라는 平和措向의 측면보다 「南
 朝鮮革命」의 추진이라는 侵略措向의 측면에서 發想된 것이라는 점
 을 스스로 명백히 해 놓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對南정책은 그것이 추구하는 目標에 있어서나 目
 標 추구의 방법에 있어서나 7·4南北共同聲明이 명시하고 있는 南
 北對話의 목표나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론적 과정으로 설정
 해 놓은 합의사항들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
 면 北韓은 어찌서 大韓民國의 「當局」을 상대로 하는 對話의 응
 했으며 7·4南北共同聲明에는 왜 합의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불가능하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오
 로지 北韓만이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추리는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한 추리는 北韓이 사회주의 진영안의 국제적 경제협력구조의 결함과 北韓자신의 정책외 차질로 말미암아 경제면에서 기술의 낙후,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과대한 군비유지가 경제에 주는 과중한 압박등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南北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제적 난국 타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추리였다. 이 추리가 적중했다면 南北對話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룩해야만 했다. 南北간에 어느 정도 긴장의 완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사태 발전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리는 반드시 적중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왜냐하면 對話 개시 후의 南北관계의 발전은 이 추리가 적중했을 경우 예상되는 사태발전의 추이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근사한 추리는 달리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北韓의 지도층이 北韓 특유의 오도되고 경직된 思考構造로 말미암아 北韓이 南北對話에 호응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南朝鮮革命」에 의한 對南赤化統一 目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條件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상의 착오를 범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광란적인 金日成偶像化에 의한 철저한 唯一思想에 기초하고 있는 北韓의 지도 체제는 대단히 圖式的이고 단순한 논리에 입각해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 그것은 北韓的 사회주의가 南韓의 자본주의 체제

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한 제도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 구조에 의거해서 北韓의 눈에 비추어진 大韓民國의 실정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失業과 飢餓가 판치는 곳인 것이다.

北韓에서 통용되는 南韓觀이 그러한 것인만큼 北韓의 지도층이 對話를 통해 일방 南韓의 「当局」을 달래면서 다른 일방으로는 對話의 과정에서 확보되는 南韓국민들과의 접촉면을 통해 南韓국민들을 자극·선동하여 소위 「南朝鮮革命」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린 南北赤十字會談에서 굳이 고집하여 자문위원들의 「축하 연설」이라는 명목으로 金日成을 선전하는 상투적인 정치적 연설을 大韓民國국민들에게 강행한 것이라든가, 大韓民國에 대해 反共法·國家保安法 폐기, 反共단체의 해산, 反共활동의 금지 등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赤十字사업의 영역에서는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이른바 「赤十字 요해 해설인원」 교환과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對話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른바 「언론·출판·집회·통행등 모든 활동의 자유와 편의, 그리고 신체 및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등의 일련의 北韓側 태도는 분명히 당초 北韓이 對話에 응한 동기에 관한 두번째의 추리와 합치되는 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다.

南北對話를 교착과 중단으로 몰아간 北韓의 태도변화는 분명히

1973년 초부터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北韓이 이러한 태도변화를 일으킨 동기 역시 北韓이 당초 對話에 응한 동기에 관한 두번째의 추리에 입각해서 풀이할 때라야 추리가 가능한 것 같다.

南北對話의 진행은 제한된 상태로나마 南北韓간의 인사왕래를 결과했고 이러한 인사왕래는 南北韓 사회의 상호 노출과 비교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北韓은 南北韓 사회가 경제적 발전의 정도나 사회개방의 정도에서 현저한 격차를 이미 들어 내고 있으며 잠재적 발전 능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目擊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目擊의 결과는 北韓체제 자체에 대한 무시 못할 不安要因 내지 위험부담 요인을 조성했다. 北韓체제의 안정은 밀봉된 사회체제 내에서 일방적인 下向式 교양에 의하여 주어진 가치에 대한 盲從의 신앙을 강요하는데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北韓체제의 사회구조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볼때 南北對話의 진행으로 南北의 사회가 서로 開放의 정도를 더해 갈 때 北韓지도층이 자기체제 불안요인의 증가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단일 北韓이 對話를 「南朝鮮革命」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생각했었다면 北韓지도층은 그러한 희망도 빛나간 희망이었다는 것을 早晚간 깨달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은 1973년 초부터 한번 열었던 門을 닫기 시작했다. 對話는 교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北韓은 7.4南北共同聲명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으로 왜곡·변조하기 시작했고 對話의 軌道 밖에서 7.4南北共同聲명을 일방적인 경계선 전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北韓은 또 對話通路를 變質시키려는 노력을 표면화시키기 시작했다.

北韓은 향방의 「當局」대 「當局」의 對話通路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으며 對話의 通路를 「人民」대 「人民」의 차원으로 격하시키기 위한 주장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北韓은 특히 금년 하반기에 들어 오면서 南北對話를 주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로서 南北의 「當局」간의 기구인 南北調節委員會의 기능을 격하시키고 기능을 약화시키며 이에 대신하여 정치적 차원의 南北對話의 通路를 「人民」대 「人民」의 차원인 이른바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대표들간의 「정치협상회의」로 이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南北調節委員會의 기능 정상화 기구가 그 것이 며, 金日成의 소위 「평화통일 5대강령」의 하나인 「大民族會議」주 장이 그 것이며, 8.28 金瑛柱 성명이 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北韓의 움직임은 共產主義전략전술의 차원에서 볼 때 이른바 「統一戰線」전술의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對話의 通路 形成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當局」, 즉 정부를 고립시키고 「인민」 즉 국민만을 상대로 해서 「合作」을 이루어겠다는 것이다.

南北對話의 不振, 그리고 中斷에는 이러한 對話外的 側面이 있는 것이다.

2. 8.28 金英柱聲明의 底意

1973년 8월 28일 北韓이 南北調節委員會 平壤측공동위원장 金英柱의 이름으로 連年 聲明을 발표하여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對話의 中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때 國內外의 그릇된 일부 여론은 이것을 李厚洛 서울측공동위원장에 대한 「忌避 宜言」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서울측이 李厚洛공동위원장만 교체하면 南北調節委員會는 殊차 개척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安이하게 이 聲明을 받아 들인 것이다. 이러한 安이한 견해는 특히 日本과 歐美的 일부 有力紙의 의해서 호응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견해는 옳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8.28 聲明을 가세해 김포·음미하지 못한 비서 결파된 문명 한 좌요였으며 그러한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인 8월 29일 서울에서 특별내외기자회견을 가진 李厚洛서울측공동위원 長의 의해서 적절하게 지적 해명되었다.

사실 당초 大韓民國이 李厚洛외를 대표로 하여 北韓과 정치적 대화를 모색했을 때 北韓의 金日成이 이를 수락한 이면에는 「아 이리나 쥘」하케도 李厚洛외가 당시 大韓民國 중앙정보부장직에 재직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흥분한 고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서 흥분한 사실의 뒷받침이 가능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李厚洛서울측공동위원장(당시) 자신이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하게 해명했다. 즉 그는 그가 1972년 5월 처음으로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 다시 11월 두번째 평양을 방문했을 때 金日成 자신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가르켜『南朝鮮에서 共産黨을 때려 잡는 당신이 왔기 때문에 당신을 신임하지만 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신임할 수도 있다』면서 李厚洛씨를 지칭하여 「民族의 英雄」「統一의 英雄」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바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李厚洛씨는 1973년 11월 중앙정보부장직을 사임하면서 南北調節委員會 공동위원장 직도 건강상 사정으로 내놓았으며 서울측은 張基榮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을 대리케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李위원장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은 南北調節委員會의 재개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對話재개를 위한 「선행조건」만을 강화함으로써 對話재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의 8.28 聲明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北韓이 8.28 성명으로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對話를 중단시키면서 역시 같은 성명에서 제시한 對話재개의 조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北韓이 8.28 성명에서 제시한 對話재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위원들에 대한 전면적 교체요구이다. 北韓은 동 성명에서 서울측이 서울측의 위원들을 ① 6.23 평화통

일 외교정책에 反對하고 ② 北韓의 이른바 평화통일 방안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바꿀것을 요구했다.

둘째 大韓民國의 내외정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北韓은 大韓民國에 대해 ①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철회 ② 反共法·國家保安法의 폐기와 이들 安保관계법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 중지, 그리고 ③ 이들 安保관계법 위반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셋째 南北調節委員會의 개편요구이다.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에 「當局者」들뿐이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참가하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하나 같이 南北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유린하는 것이며 南北對話의 「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들 요구사항들은 7.4 南北共同聲明에 대한 부당한 挑戰이며 「南北調節委員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전면적 무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北韓은 8.28 성명을 통해 그들이 첫째 南北對話를 8.28 성명을 통해 그들이 첫째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려 하며, 둘째 적어도 당분간 그들이 바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南北對話를 재개하지 않으려 하며, 셋째 對話를 재개한다 해도 南北調節委員會라는 對話의 통로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北韓側 8.28 성명의 眞意는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것이다.

3. 南北赤十字 會談의 中斷 原因

南北赤十字會談은 그동안 일곱차례의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어 왔다. 일곱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의 1천만 이산가족·친척들의 인도적 고통을 경감시켜 줄 목적을 지닌 赤十字會談은 그동안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를 이룩하지 못했다. 그나마 회담은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제 7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그뒤 5개월이 지나도록 회담개최마저 중단되고 있다.

赤十字會談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기본자세의 차이에 있었다.

大韓赤十字社는 国土分斷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南北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중시, 赤十字人道主義 원칙과 赤十字의 정치적 중립원칙, 그리고 國際赤十字가 세계 모든 국가적십자 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이산가족 재결합 사업 원칙에 쫓아서 南北韓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기타의 문제에 우선해서 이산가족 친척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

北韓赤十字會側은 赤十字 會談이라는 人道的 對話의 통로를 南北 調節委員會라는 정치적 대화의 통로와 구별할 것을 거부해 왔다. 北韓赤十字會側은 南北韓의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할 것을 거부하고 이들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南北韓의 정치적 통일문제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양자를 동시, 일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北韓側은 韓國의 경우 『최고의 인도주의는 곧 통일이며 통일을 떠난 인도주의는 없다』고 강변해 왔다. 따라서 北韓赤十字會側은 赤十字會談의 赤十字的 순수성을 의식적으로 배척하고 赤十字會談에서 계속 정치적 문제들의 토의와 해결을 고집해 온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의 의제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① 이산가족, 친척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 ② 이산가족, 친척의 재회와 방문 ③ 이산가족 친척간의 서신교환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이다.

회담은 1972년 10월의 제3차 회담 때부터 의제 제1항을 상정, 그 사업실천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토의를 시작했으나 위에 설명한 쌍방의 입장을 차로 말미암아 의제 제1항에 대한 실질토의 자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赤十字가 주관하는 국제적 이산가족 심인 사업의 확립된 사업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의제 제1항에 상정된 사업은 대단히 초보적이고 단순한 기초사업이다.

大韓赤十字社側은 이 사업의 실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赤十字가 국제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관용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준한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그것은 南北 쌍방의 赤十字가 중개기구가 되어 휴전선 반대쪽의 가족과 친척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사 의뢰서를 받아 조사 의뢰 사실에 대한 사항을 조사·확인해서 回報書로 알려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北韓赤十字會側의 제안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北韓赤十字會側의 제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산가족·친척 심인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大韓民國
이 먼저 적절한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反共法, 國家保安法을 폐기해야 한다.
- 2) 反共단체들을 해산하고 일체의 反共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 3) 南北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언론·출판·집회·통행의 자유와
편의, 그리고 신체와 휴대품의 불가침권을 보장해야 한다.
- 4)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나. 南北간에 「赤十字요해 해설인원」들이 매 里·洞 1명씩 교환·
파견되어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群衆解說사업이며 이들에게도
언론·출판·집회·통행등의 자유와 편의, 신체와 휴대품의 불가
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 이산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의 방법은
赤十字가 개입할 필요없이 당사자가 직접 상대측 지역에 자유
로히 가서 직접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北韓赤十字會側의 제안 내용이 赤十字會談에서 토의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란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 赤十字會側은 자기측의 제안을 한사코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담은 한치의 진전도 이룩하지 못한

채 회담만 계속해 왔다. 7월의 제7차 회담에서 大韓赤十字社は 회담교착타개의 한 방안으로 의제와 상관 없이 금년 추석(9월 11일)을 전후해서 이산가족·친척들로 구성되는 秋夕省墓訪問團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제의했으나 北韓赤十字會側이 이나마도 거부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北韓은 8.28 성명으로 南北調節委員會를 통한 정치적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분명히 名分상의 고려 때문에 성명에서 赤十字會談에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양쪽에 똑 같은 정치적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赤十字會談도 중단시켰다. 大韓赤十字社側의 제8차 회담개최를 위한 몇차례의 예비적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北韓赤十字會側은 이 접촉시도를 外面함으로써 회담개최를 불가능하게 해온 것이다.

4. 對話正常化의 展望

1973년 11월부터 南北간에는 中斷됐던 두 갈래 南北對話의 재개를 위한 신중한 일련의 탐색적 접촉이 板門店을 무대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두 갈래 南北對話를 年內에 재개하려는 大韓民國側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접촉에도 불구하고 두 갈래 對話가 빠른 시일 안에 전면적으로 재개될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北韓側이 계속해서 회피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南北 접촉 경위를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對話 再開에 관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南北調節委員會

南北調節委員會의 서울측은 11월 15일 南北直通전화를 통해 평양측에 공한을 보내 南北調節委員會 제 4차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했다. 서울측은 이 공한에서 위원회 제 4차회의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쌍방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쌍방 간사위원간의 접촉을 제의하고 『만약 위원회의 재개를 위해 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양측의 의견이라면 위원회의 개편문제를 포함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양측은 11월 16일 柳章植부위원장이 서울측의 張

基榮부위원장에게 공한을 보냄으로써 北韓側의 반응을 전해왔다.

그러나 서울측의 위원회 재개 제의에 대한 평양측의 반응은 소위 8.28 金英柱성명을 되풀이하고 大韓民國에 대해 反共法・國家保安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의 중지를 요구하며 南北調節委員會는 「政黨・社會團體 대표」들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이고도 불성실한 것이었다.

서울측은 이에 쌍방 부위원장회의의 개최를 평양측에 제의, 그 결과로 12월 5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부위원장회의가 板門店에서 개최되었으나 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문제는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나.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는 역시 11월 15일 赤十字社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南北直通전화로 北韓赤十字會에 「메시지」를 보내 서울에서 개최될 차례인 제8차 회담의 年内 개최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1월 16일 쌍방연락 책임자들이 板門店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의의 결과로 쌍방간에는 11월 22일 쌍방 연락 책임자회의가, 그리고 28일에는 쌍방 회담대표 1명씩이 참가하는 확대 연락책임자회의가 역시 板門店에서 열렸다. 이러한 예비접촉에서 大韓赤十字社는 제8차 회담을 12월 19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한 北韓赤十字會側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北韓赤十字會側은 불법・부당한 일방적인 요구조건의 제시로 제8차 회담 개최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赤十字會側이 내놓

은 요구조건은 ① 大韓赤十字會談대표단에서 非赤十字要員을 제거하라는 것 ② 大韓民國이 國家保安事犯들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라는 것 ③ 서울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해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제 8 차 회담을 순번을 어기고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것등이다.

北韓赤十字會側의 태도로 보아 赤十字會談의 年内 再開는 無望한 것이었다. 大韓赤十字社는 쌍방간의 異見 조정의 계속을 위해 연락 책임자회의의 속개를 제의했으나 北韓赤十字會側은 이 제의마저 묵살해 버렸다.

다. 장기적 전망

北韓側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로 미루어 對話의 전면적 재개가 당분간 가망이 없다는 것은 일치된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망할 때 南北對話는 결국 재개될 것이며 그 시기도 멀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전망이다. 그것은 최근의 국내외 정세의 추이를 감안할 때 지금은 완고한 北韓에게도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와 안정된 平和의 정착이라는 當面의 과제가 거역할 수 없는 當爲로서 부각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으로는 昨今の 일정한 기간이 그들이 그렇게 추구해 마지 않는 소위 「南朝鮮革命」에 의한 對南赤化統一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꿈」이며 그러한 「꿈」의 실현을 위해 쏟아 붓고 있는 막대한 物量과 精力은 불필요한 浪費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꿈」의 실현은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결의에 충만한 大韓民國의 국민들이 이를 용납치도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大韓民國의 경제력과 막강한 自衛力이 그 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또 國際情勢가 그러한 방종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년도의 제 28 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韓國 문제에 관한 「合意聲明」의 내용과 또 그 「合意聲明」의 채택을 결과한 국제정세의 흐름은 北韓의 지도층에서도 진지한 검토와 음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국제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北韓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유엔」 총회의 「合意聲明」의 의미

1971년과 1972년의 2년에 걸쳐 「유엔」은 韓國문제의 총회 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 왔다. 그것은 南北韓간에 對話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南北韓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對話에 착수한 이상 「유엔」이 韓國문제에서 비켜서서 對話의 진행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어떠한 조치도 이를 삼가는 신중한 태도를 지킨다는 것은 현명하고도 논리적인 처사였다.

상황은 금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南北對話는 起伏을 보이면서 아직 계속 중이고 對話의 구체적 성과는 아직도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지난 2년간의 관례를 깨고 금년에 제 28차 총회에 韓國문제를 상정·토의해야만 했다. 韓國문제에 관한 「알제리아」案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는 순전히 北韓의 희망에 의한 것이었다. 금년초부터 對話를 냉각시키고 상투적인 평화통일 선전공세로 역점을 바꾼 北韓은 지난 9월초 「알제리아」수도 「알지에」에서 非同盟國家 頂上會談에서 韓國문제에 대한 親北韓的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를 근거로 「유엔」에서의 票 對決에서 大韓民國에 대한 勝利를 자慢한 나머지 「알제리아」등 35개국으로 하여금 北韓一辺倒的인 韓國문제에 관한 決議案을 「유엔」에 제출하고 이의 총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大韓民國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大韓民國은 韓半島문제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정당한 입장과 韓半島의 공정한 현실파악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韓國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27개 友邦국가로 하여금 공동제안케 함으로써 票對決에 대비한 布石을 완료했다.

그러나 韓國문제에 관한 南北韓의 票對決이 결코 生産的인 것일수 없었다. 大韓民國은 友邦국가들과의 긴밀한 제휴아래 「알제리아」案공동제안국들과 활발한 접촉을 통해 票對決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北韓은 이러한 노력에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유엔」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것이었다.

「유엔」은 쌍방 공동제안국들의 동의를 얻어 韓國문제에 관한 두 결의안을 모두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정치위원회와 총회에서 각기 만장 일치로 채택된 「合意聲明」을 통해 南北韓 쌍방에게 7.4 南北共同聲明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南北對話를 계속하고 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이것은 南北對話의 조속한 전면 재개를 바라는 막강한 국제적 압력인 것이며 최근에 와서 對話계속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굳혀온 北韓에게는 하나의 각성제가 아닐 수 없었다.

「유엔」은 또한 大韓民國의 동의 아래 「언커크」가 스스로 요청한 「언커크」해체결의를 승인함으로써 「유엔」은 韓半島문제에

관해서는 南北韓간에 이견이 없는 문제에 국한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관계를 만들었다.

Ⅳ. 對話의 展開條件

朴正熙大統領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제2항에서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南北間은 서로 內政干涉을 하지 말아야 하며 侵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南北對話가 成功을 거두어 所期의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반드시 지켜야 할 「競技規則」이 있다. 그것은 朴大統領이 갈파한 것과 같이 南北間에 平和가 유지되어야 하며 서로 內政干涉과 侵略을 하지 않는다는 前提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南北의 어느 一方에 의해 平和가 위협을 받고 또 다른 一方의 內政이 간섭을 받으며, 다른 一方에 대한 侵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南北對話가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自明한 이치인 것이다.

금년 3월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회의에서 서울측의 李厚洛공동위원장은 對話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前提條件으로 다음의 6개항목을 명시하였다. 그것은 南北 쌍방이,

- 상호 體制 否定을 止揚하고
-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이해하며
- 자기 相對方의 體制 內部문제를 비난·간섭하지 않고
- 자기 자기 體制에 입각하여 국민의 福祉증진에 노력하며
- 體制를 초월하여 民族의 同質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協力關係를 조성해 나가고

○ 體制와 體制간에 南北共同聲明에 입각한 성실한 對話를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7.4 南北共同聲明의 기본정신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南北對話는 어디까지나 體制와 體制간의 對話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南北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문제는 韓半島와 南北關係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直視함으로써만 실현성 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어떠한 「幻想」이나 「幻覺」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韓半島의 엄연한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南과 北이 사상과 이념, 제도와 역사관 및 가치관을 극단적으로 달리하는 두개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에는 어떠한 塗糊도 粉飾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南北對話의 목표는 南北 두 體制의 이러한 극단적인 異質性을 民族의 同質性이라는 熔鑄爐에 넣어서 긴장완화와 이해 및 신뢰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化學反應을 거쳐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北韓은 의도적으로 韓半島의 엄연한 현실을 外函하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을 무시한 채 「하나의 民族」이라는 感傷的인 입장을 앞세워 大韓民國에 대한 부당한 內政干涉을 정당화 시키려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 北韓방송에 의한 對南비난방송의 경우가 그렇고 또 大韓民國의 內外 정책과 법질서, 그리고 사회현상에 대한 더무니 없는 간섭이 그것이다.

北韓은 또 大韓民國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 제 5 항이 「南北韓 同時 「유엔」 가입 不 反對」 표명 조항을 이유로 하여 6.23 선언이 「두 개 韓國의 固定化」 정책이요 「民族分裂을 영구화시키는 음모」라고 근거도 없는 中傷·誹謗을 퍼붓고 있다. 이 것 역시 南北韓이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을 고의로 外面하고 하나의 幻覺을 強賣하는 얼은 수작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韓半島의 현실은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韓半島는 지금 「두개의 體制」로 分斷되어 있으며 결코 「하나」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두개의 體制」를 「하나」로 합쳐 統一祖國을 復元하려는 막중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誠實과 忍耐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과 역사관, 가치관을 달리하는 두 體制를 하나로 합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더구나 최근 北韓이 보여 주고 있는 現實 外面的·對話否定的 태도를 감안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結實을 하는 그 날은 오히려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朴正熙大統領의 6.23 선언은 이러한 현실상황을 十分 감안한 현실적·합리적·전설적인 정책구상인 것이다.

朴大統領은 南北韓의 同時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하여 6.23 선언에서 『「유엔」의 다수회원국의 뜻이라면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 아래』이에 反對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韓半島에 南北韓이 併存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統一

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예상 외에 장시일을 요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전망이다. 北韓이 언필칭 聯邦制를 운위하지만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간에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 聯邦 구성이 가능할 것이며 또 그러한 두개의 異質的인 體制간에 「유엔」의 단일 회원국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일의 교정책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1973년 6월 23일의 연설에서 南北聯邦制를 주장하고 『두개의 朝鮮에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변한 北韓의 金日成은 바로 그 자리에서 北韓은 『北韓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들과 호혜·평등에 기초해서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입으로 두 말을 하는 강심장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北韓은 소위 「等距離 外交」를 부르짖으면서 大韓民國의 修交국가들에 대해 同時修交공세를 펴므로써 스스로 국제 관계에서 「두개의 韓國」노선을 추구해 왔으며 지난 12월 초에는 南北韓과 同時修交를 하겠다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제의를 아무런 異議없이 받아들여 「뉴·델리」와 「다카」에 大韓民國과 함께 公館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WHO와 IPU 동시가입에서 보여준 바있는 北韓의 二律背反的인 행동에 대해서는 구태어 더 논란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냉철하게 고려할 때 朴大統領이 6.23선언에서 표명한 南北韓同時 「유엔」가입 不反對 표명은 진정으로 平和指向的이고 先見之明이 있는 決斷이며 오로지 平和가 확고히 다

저진 바탕 위에서 統一의 길을 넓혀가려는 意志의 표현인 것이다.

南北對話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北韓이 假面的이고 自家撞着的인 現實否定 자세를 버려야 한다. 北韓은 韓半島의 平和에 대한 진정한 使命感을 갖추어야 하며 武力은 물론 「革命」과 「鬭爭」에 의한 赤化統一기도를 버리고 大韓民國에 대한 不法·不當한 內政干涉을 중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南北 간의 모든 문제를 기존 합의사항에 쫓아서 오로지 對話를 통해 협의·해결한다는 誠實한 對話의 자세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말로 거창한 민족적 사명을 지닌 南北對話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전에 충족되어야 할 前提條件들이다.

V. 結 語

南北對話는 8.15 宣言에서 그 基礎를 마련하였고, 8.12 南北赤十字會談 提議로 南北對話가 始作되었으며, 7. 4 共同聲明으로 本格的인 軌道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8.28 金英柱의 對話拒否宣言으로 對話는 中斷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主導下에 展開되었던 南北對話는 北傀의 對話中斷 忌避現象으로 對話가 中斷되기에 이르렀으며 南北間에는 다시 금 緊張狀態가 造成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北韓은 對內的인 政策으로 所謂 3大革命을 高唱하여 "思想, 文化, 技術革命"을 내세우고 南北間의 接觸으로 야기되었던, 나아가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問題로 提起될 思想的 解弛에 대해서 이의 統制를 늦출 수 없다는 意圖下에서 더욱 思想革命을 強化할 데 대하여 다구치고 있다.

이와 아울러 北韓이 部分的 開放化로 外來文化가 浸襲된다면 그들의 體制에 있어서도 크나큰 동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積極적 防禦가 시급한 狀態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고 判斷하고, 이에 대한 對備方向으로 所謂 낡은 思想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 周邊에 이런 낡은 思想을 가진者가 많다"고 痛駁하고 있다. 이것은 다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結付시켜 思想的 統制를 가하는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와 아울러 다구치고 있는 것은 技術革命으로 所謂 6個年計劃에서 그들의 落後性을 挽回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이러한 意圖는 더욱이 南北對話로 因하여 南北間의 往來에 따라 北韓의 經濟的 脆弱点에 크게 露出되고 이러한 狀態下에서 그들은 南韓과의 對決的 體制로서는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라 보겠다.

특히 北韓은 南北對話 이후 南韓의 優越성을 実感하고 人民捧仕 委員會를 새로우어 調節委 副委員長 朴成哲을 그 委員長으로 내세우는 등 北韓住民의 生活 向上에 안간힘을 쓰고 있음이 發見되고 있다.

어떻든 北韓이 이런 內部的 矛盾을 더 들어 내놓기 前에 南北對話의 中斷이 不可避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南北對話나 南北交流는 이런 北韓의 脆弱要素가 除去되지 않는 한 으면 誠意나 積極的인 姿勢에도 不拘하고 어렵다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러나 對話는 中斷될 수 없는 것이 內外的 与件이고 보면 우리는 보다 새로운 次元에서 南北對話를 모색해 가야 한다는 命題의 해결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點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弘報對策도 필요하다면 南北韓이 共感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